2025. 12. 15

금융 Weekly Insight

FED 이벤트는 끝났지만 – 국내 금리 및 환율 불확실성 완화가 관건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5년 12월 셋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지난 주 FED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단행하였고 dovish한 입장을 표명. 하지만, 금리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 지난 주 AI관련 event (예: 오라클)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 즉, 이와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금융업종도 일부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금융업종은 상대적으로 Valuation 매력도가 여전히 높고,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음에 초점 필요.
- 최근 화두는 금리. 이는 FED의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 국내 시중금리는 오히려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2개월간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세를 시현하였고, 이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의 금리 상승은 물론, 회사채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음. 이에 회사채 발행은 오히려 일부 연기되는 상황.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이와 같은 흐름은 분명 이례적인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금융사들의 실적에 일부 영향 불가피.
- 여전히 26년의 경기 환경은 GDP성장률이 1Q 중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5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례적인 매크로 지표의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25년에 제기되었던 실적 부담요인이 26년 중 점차 해소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

금융 Overview

- 은행 - 은행주는 2.6% w-w 하락으로, KOSPI 1.6% w-w 상승에 비해 언더퍼폼: 지난 주 FED의 금리 인하로 인해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주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특히 결제사 (예: Visa, MasterCard)들과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음.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결제 및 핀테크 관련주들 중 일부가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국내 은행주는 상승세가 크지 않았음. 이는 1) 12월 18일 금감원의 홍콩 ELS관련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전히 실적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있는 가운데, 2) 최근 금리 및 환율 등의 환경은 금융사들에 우호적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 특히, 고환율 및 고금리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투자와 건전성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즉, 은행은 실적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향후 관건인 가운데, 앞서 언급된 요인들의 점진적 개선을 기대, 긍정적 시각을 유지.
- 증권 - 증권주는 0.3% w-w 상승으로, KOSPI 1.6% w-w 상승과 유사한 흐름: 지난 주 FED 금리 인하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AI 관련 우려로 증시 불확실성은 지속되며 시장 베타 성격의 증권 업종 주가 또한 정체된 흐름을 보임. 증권 업종의 경우 고금리/고환율 등 매크로 환경이 외환, 채권 운용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투자심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다만, 실제 4분기 실적의 경우 q-q 5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의 우려 대비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운용 손익 민감도가 낮은 종목 중심으로 단기 선호도는 높아질 전망.
- 보험 – 보험주는 -2.1% w-w 하락으로, KOSPI 1.6% w-w 상승 대비 부진한 흐름: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1) 장기보험 손익 악화 장기화 가능성 및, 2) 연내 해약환급금준비금 규제 완화 여부 난망 등 악재 요인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 한편, 연말 계리적 가정 조정 및, 이에 따른 CSM 차감 우려 또한 확산되는 등 전반적인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다만, 매크로 환경 관점에서는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초 장기/자동차 보험료 인상 국면에서는 펀더멘탈 회복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8)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연임 확정 – 내년 3월 주총서 최종 선임** -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 BNK금융의 임추위는 8일 심층 면접 실시 후 차기 회장으로 빈 회장을 추천하였고,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 - 연임에 대한 배경으로 리스크 관리 기조에 기반한 재무적 성과와 PF부실 여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언급. - 26년 3월 정기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 예정.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지속 관점에서 긍정적:** BNK금융은 빈대인 회장 취임 후 RoRWA 중심의 경영 전환과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 이행 중에 있음. 이에 따른 결과는 동사 실적으로 구현되어 왔는데, 동사는 RoRWA 중심 경영 기조 하에서 RWA 성장률 관리와 수익성 관리를 통해 CET-1 비율을 개선하였고, 이는 동사 주주환원율의 가시적 상승으로 귀결. 실제로 동사는 27년 주주환원율 목표 50%를 제시한 가운데, 25년 기준 주주환원율은 4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즉, 회장 연임을 통해 기존의 경영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향후 관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상 주주환원율 상승의 확인과 더불어 ROE의 유의미한 개선:** 향후 빈대인 회장 2기에서 관건은 1) 주주환원율 목표 50%의 달성과 더불어 2) ROE의 1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 특히, ROE의 개선은 동사의 주주환원율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이자 동사의 RORWA 중심 경영의 성과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
	(12/8) 26년부터 우체국에서도 은행 대출 가능 - 금융위는 12월 17일 정례회의에서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지정 예정. 이를 통해 이들 점포에서는 4대 은행이 예금과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정부는 26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할 계획. 이는 전국 20여 곳의 총괄우체국에서 이뤄질 예정. 참고로, 총괄우체국은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 창구 업무와 우편물의 집배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우체국으로 전국 220곳에서 운영 중. - 시범기간 동안 고객들은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 가능. 정부는 대출 상품 먼저 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품 범위를 확대 예정. - 한편, 은행 대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은행 점포 폐쇄 가속화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이 은행 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점포를 폐쇄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	**금융의 디지털화 속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대:**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모바일로 가능해짐에 따라 오프라인 은행 점포 방문 고객은 꾸준히 감소. 이에 은행들은 비용 관리 등을 위해 지난 수 년간 인력 및 점포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음. 하지만, 이는 반대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해라는 부작용을 초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26년부터 실행하겠다는 취지.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은행 경쟁 심화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 일각에서는 은행 대리점이 판매 채널 역할을 함에 따라 은행들의 바게닝 파워 약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마진 훼손을 우려하지만, 이는 과도하다고 판단.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 속 은행들의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GDP 증가율 이하로 관리될 전망인 만큼, 가격 경쟁 심화 가능성은 낮고, 이미 은행 고객 대부분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각 은행들의 상품을 비교, 가입하고 있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10) 금융지주 회장 검증 강화** -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지배구조개선 TF를 가동. 회추위 구성 사외이사의 임기를 분산하고, 3연임 시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 가이드라인이 논의 예정. - 다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시각은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실제 사외이사 선임 절차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의 경우 주주추천, 외부기관 추천 등 2가지 방식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예시로 언급. 즉, 사외이사 추천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	**사외이사 선임 – 과거와 다르다:** 각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 중. 특히, 사외이사 선임은 주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 표결에 관철될 수 있고, ISS와 같은 의결권 자문사 등을 통해서도 검증과 표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 필요. 실제로, JB금융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한 바 있음. 즉,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을 고려 필요. **연임과 관련된 해외의 사례 – 유능한 CEO의 중요성 입증도 고려 필요:** 한편,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연임이 과연 나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 물론, 장기 집권의 폐해는 분명 지양해야 하지만, 해외 금융사들은 CEO가 장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오히려 긍정적 영향력을 증명한 사례도 다수 있음을 주지 필요. JP모건의 다이먼 회장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의 사례는 금융사가 유능한 CEO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의 이점을 증명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금융지주 최고 경영진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미션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금융지주들의 최고 경영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내 금융산업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 즉, 향후 고민되어야 하는 사항은 1) 금융지주의 CEO 선정 절차가 주식시장 및 주식회사라는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2) 금융지주 CEO가 최우선시 해야 하는 미션에 대한 고민이라 판단. 특히, 은행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지주들의 CEO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주식회사 CEO로써의 미션은 물론, 금융의 역할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가치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12/10) 하나, 신한증권도 발행어음 사업자 가세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안건을 통과시켰음. 이에 1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인 것으로 보도. - 발행어음 사업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자본의 2배까지 조달 가능. 조달한 예탁금의 최대 25%를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 A등급 이하 회사채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함. -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발행어음이 과도하게 늘 경우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주의 필요성이 제기. 가령, 부실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나 특정 섹터의 스프레드 축소가 대표적.	**금융지주 ROE 제고를 위해서는 비은행이 관건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금융지주의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ROE가 높은 비은행 부문의 강화가 필요. 이를 위해서는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혹은 신규 라이선스 등이 필요한데, 양사의 발행어음 라이선스 확보는 그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다만, 향후 관건은 운용 역량:**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결국 관건은 운용 역량.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고,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경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마진 확보가 주된 관건이 될 전망.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며 PF,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서 수업료를 치렀던 만큼,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들은 정교한 투자 접근 및 이를 통한 성과 창출을 통해 운용 역량과 그룹 ROE 개선 기여를 증명하는 것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12/11)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 금융위는 26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6개월 미루기로 결정. 지난 7월 1일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가 적용되었지만, 지방 주담대는 예외로 절반인 0.75%의 가산금리만 적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정은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도.	**다만, 은행 가계대출 문턱은 여전히 내년에도 높을 전망인 점 고려 필요:** 지방 주담대에 대한 DSR 3단계 적용 유예에도 불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내년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하회할 전망. 즉, 은행들의 가용 가계대출 재원이 한정된 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수요 vs 공급 – 가격 협상력은 은행에:** 올해 은행들의 NIM 방어에 일부 기여했던 요인으로는 은행들의 주담대에 대한 가격 협상력 제고를 꼽을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가격 협상력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 여전히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여지가 크기 때문. 이는 은행의 26년 NIM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다만, 26년 중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강화 과정에서 기업대출 금리 스프레드 축소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NIM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참고로, 우리는 내년 은행들의 NIM이 mid-single digit 하락할 것으로 추정.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2/12) 주담대 대환 금리가 일반 주담대 금리 추월** - 은행들의 주담대 대환 금리가 일반 주담대 금리를 상회. 일례로, 5대 시중 은행들의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4.32~4.57%로 신규 주담대 4.19~5.97%와 비교할 때, 하단이 19bp 더 높았음. - 은행들이 대환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기인.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맞춰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를 주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이에 대환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은행들은 금리를 높여 대응하는 것. - 내년에도 한동안 대환대출 금리가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올해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커지기 때문.	**대환대출 - 시스템 총액은 늘지 않지만, 이를 받는 은행은 부담:** 대환대출은 시스템 상 총 가계대출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음. 하지만, 문제는 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한 해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차감 요인이 발생하는 것. 이에 은행들은 대환대출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설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 **대환대출의 취지에 고려 요구는 가능하지만...:** 당초 대환대출 활성화의 취지는 차주들로 하여금 보다 낮은 금리의 주담대로 갈아타게 함으로써 이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궁극적으로는 소비 증가와 같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환대출과 신규 주담대간 차별성이 없을 경우, 대환대출에 금리를 인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낮아질 수 있음. 이에 향후 정책적 고민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판단.
증권	**(12/8) 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현장점검 속도…키움/하나도 착수** - 금융감독원이 한투, NH에 이어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의 해외투자 영업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 - 현장점검은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 환전 수수료, 외환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다각도로 점검 - 당국은 최근 위험성이 큰 해외 파생상품과 관련해 공격적 마케팅을 지적한 바 있음	**해외주식 과당 경쟁 축소 가능성 시사:**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의 경우 최근 토스, 메리츠 증권 등 공격적인 점유율 상승세에 따라, 시장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및 지원금 등 프로모션 경쟁이 격화되었던 상황. 이에 따라 해외주식 평균 수수료율 마진 또한 2020년대 초반 20bp 이상에서 최근 10bp 초반까지 하락세가 관찰되었던 상황. 다만, 최근 당국의 공격적인 영업 자제 요청에 따라, 이러한 마진 축소 현상은 당분간 완화될 수 있을 전망.
	(12/10) 금리 치솟자 채권 평가손 '눈덩이'…증권사 4분기 수익에 직격탄 - 금리 상승 국면에서 채권 매매에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한 증권사들에서 10월, 11월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헤지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대형사 대비, 공격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는 중소형사에서 손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대형 증권사의 경우 브로커리지 손익 증가를 통해 운용 손익 감소를 만회할 전망:**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운용 손익 축소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다만, 실제 우려 대비 4분기 실적은 양호할 전망인데, 이는 증시 거래대금 증가세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 11월 누적 기준 4분기 일평균거래대금은 약 4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로도 약 50% 증가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 이는 결국 브로커리지 기반이 있는 대형사의 경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익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
보험	**(12/9) 손보업계 연말 GA 채널 매출 경쟁 격화** - 연말 들어 손보사들의 GA 채널 인보험 신계약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기준 상위 5개사(삼성, 현대, DB, KB, 메리츠)의 매출 MS가 7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 - 업계에서는 매출 급증 이유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연말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 확대 등을 원인으로 언급.	**메리츠의 공격적 움직임 변화에 주목:** 보험사들의 매출액 확대 상황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메리츠화재의 공격적 영업 전환. 실제로 12월 첫째주 동사의 GA 채널 M/S는 17.2%로 업계 1위를 기록하였음. 동사는 내년 M/S 목표 또한 30%로 공격적으로 설정한 만큼, 수익성 관리 모드로 전환한 타사 대비 공격적인 매출 확대가 주목되는 상황.
	(12/10) 금융당국 보험사 '헤지회계' 적용 검토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대해 헤지회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 헤지회계는 특정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대상과 관리수단을 지정해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 이는 통상 보험부채 변동이 OCI를 통해 반영되는 반면,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파생상품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되기 때문 - 금융당국이 헤지회계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로, 보험사들은 기존 대비 손익 변동성을 축소하며 ALM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ALM 관리는 물론 자산운용 수익률 관점에서도 긍정적 변화로 판단:** 금융당국의 헤지회계 적용 시, 보험사들의 ALM 부담은 축소될 수 있을 전망. 특히 IRS 등 금리파생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ALM 관리에 소요되는 자산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 이는 결국 현재 보험사 발 무조건적인 장기채권 매입 수요 또한 진정시켜, 결과적으로는 장기채권 수익률 곡선 자체를 상향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5-12-15 (월)	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미국 1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로존 10월 산업생산
		일본 4분기 단칸 대형제조업체 업황판단지수
		일본 10월 3차산업지수
		중국 11월 주택가격지수
		중국 11월 실업률·산업생산
		중국 11월 고정자산투자·소매판매
		중국 11월 외국인 직접 투자
2025-12-16 (화)	10월 통화 및 유동성	미국 11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10월 소매판매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11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유로존 12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독일 12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
		영국 12월 CIPS/S&P 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영국 10월 실업률
		일본 12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예비치
2025-12-17 (수)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미국 11월 소매판매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10월 기업재고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독일 12월 IFO 기업환경지수
		영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영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10월 핵심기계류수주
2025-12-18 (목)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11월 경기선행지수
		미국 12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결정
		영국 영란은행(BOE) 기준금리결정
		일본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결정
2025-12-19 (금)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	미국 11월 기존주택판매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독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독일 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12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11월 공공부문 순차입/순상환
		일본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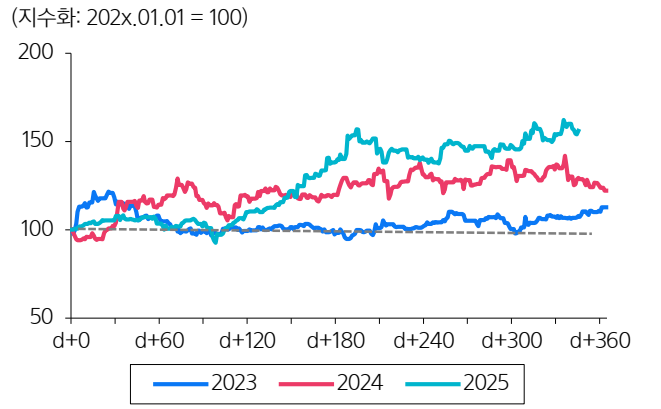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5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3,339.5	4,167.2						1.6%	0.4%	67.9%	73.7%
	KRX은행	171.6	1,300.5						(2.6%)	(2.8%)	47.1%	55.9%
	KRX증권	52.9	1,551.2						0.3%	(6.0%)	98.3%	110.5%
	KRX보험	78.1	2,620.6						(2.1%)	(6.5%)	29.9%	38.1%
	결제 지수**	1.366	n/a						0.5%	(0.6%)	41.1%	52.5%
은행	KB금융	48.1	126,100	52.6	0.8	10.7	7.9	17.9	(3.5%)	(6.4%)	44.9%	52.1%
	신한지주	37.7	77,700	45.3	0.7	10.2	7.3	20.9	(3.1%)	(4.5%)	53.6%	63.1%
	하나금융지주	25.8	92,700	44.1	0.7	10.4	6.4	11.2	(2.6%)	(3.8%)	54.5%	63.2%
	우리금융지주	20.3	27,650	34.7	0.6	10.5	6.3	5.2	(3.0%)	2.4%	75.3%	79.9%
	기업은행	16.9	21,150	32.0	0.6	9.1	6.5	4.6	0.5%	1.9%	44.6%	47.6%
	BNK금융지주	4.8	15,260	37.8	0.5	8.4	5.7	18.8	(2.9%)	(2.3%)	37.1%	47.6%
	JB금융지주	4.8	25,400	35.7	0.4	8.9	5.1	119.7	1.2%	5.6%	40.7%	56.0%
	iM금융지주	2.3	14,220	44.7	0.9	13.2	7.0	4.6	(2.8%)	(2.5%)	59.8%	73.8%
	카카오뱅크	10.4	21,900	45.0	1.5	7.0	22.4	5.8	(0.5%)	(2.4%)	(7.6%)	4.0%
증권	미래에셋증권	12.7	22,200	45.7	1.1	9.9	10.8	34.9	1.6%	(9.6%)	149.4%	176.5%
	NH투자증권	7.6	21,300	47.8	0.9	11.0	8.6	24.9	(0.5%)	(5.1%)	54.5%	52.7%
	한국금융지주	9.3	167,400	20.7	0.9	19.3	5.3	90.1	2.1%	(5.2%)	120.3%	134.8%
	키움증권	7.6	286,500	28.1	1.2	18.4	7.3	35.1	(0.3%)	(4.0%)	137.8%	146.6%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4	111,000	50.3	1.9	24.7	7.6	18.7	0.0%	(8.0%)	9.4%	6.7%
	삼성화재	22.5	489,500	42.4	1.2	12.5	10.4	5.5	(6.2%)	(6.2%)	31.6%	36.5%
	삼성생명	31.1	155,500	44.6	0.6	6.2	11.9	8.8	(1.7%)	(6.9%)	49.7%	64.0%
	DB손해보험	8.7	122,800	29.0	1.0	17.4	5.8	-18.2	(1.9%)	(14.2%)	14.7%	19.5%
	한화생명	2.7	3,105	0.0	0.2	4.5	5.2	-30.8	0.6%	(5.2%)	16.9%	26.2%
	현대해상	2.6	29,450	0.0	0.5	16.1	3.1	-22.9	(2.6%)	(1.0%)	10.1%	19.2%
결제	카카오페이	6.4	47,400	n/a	n/a	3.7	102.5	흑전	(2.3%)	(11.4%)	56.4%	80.6%
	NHN KCP	0.6	15,650	n/a	n/a	17.3	12.7	9.1	(0.1%)	(5.7%)	88.6%	120.4%
	KG이니시스	0.3	10,800	n/a	n/a	8.9	4.3	68.0	1.0%	2.6%	14.3%	22.2%
	KG모빌리언스	0.2	4,910	n/a	n/a	11.2	4.9	18.0	2.0%	0.9%	3.9%	3.5%
	나이스정보통신	0.3	25,300	n/a	n/a	7.4	7.2	174.3	0.2%	9.1%	35.2%	41.0%

참고: 12/12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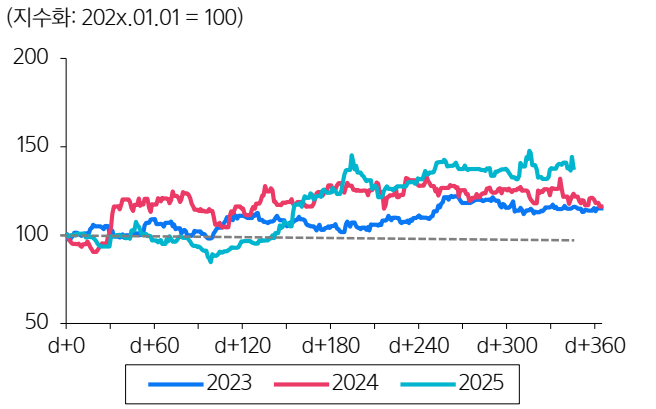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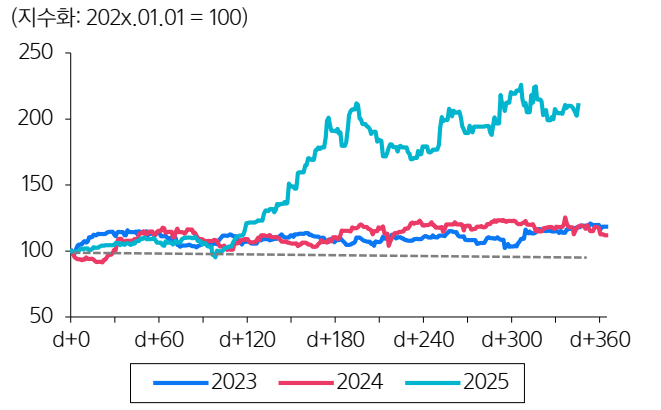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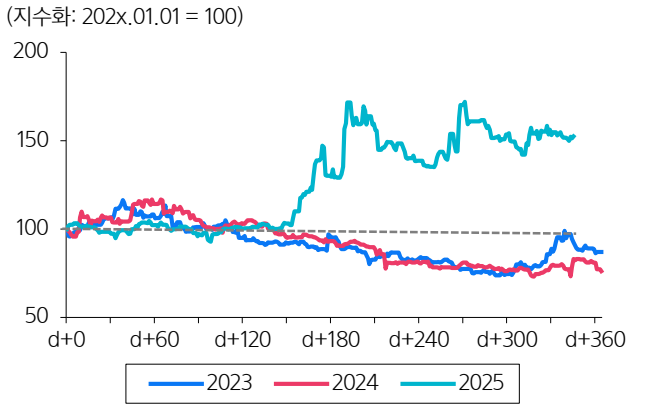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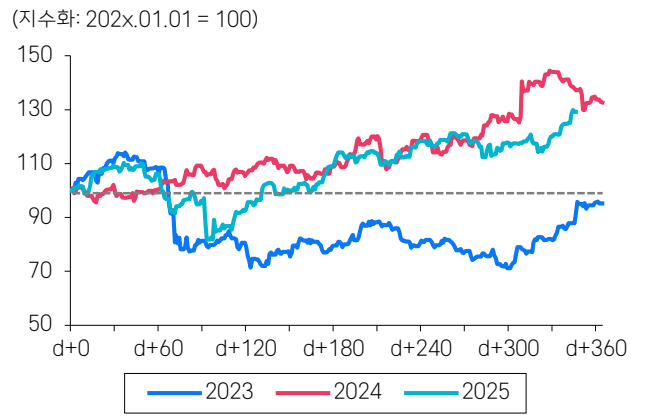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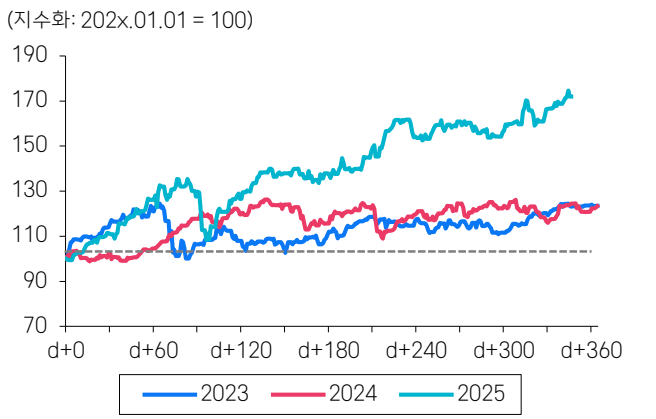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5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67.1	83.2	2.5	16.8	15.7	3.0	1.1	4.9	32.7	32.9
		Bank of America	402.7	28*	1.4	10.5	14.4	17.9	2.2	4.8	20.7	25.5
		Citigroup	200.0	122.4	1.0	7.6	14.7	27.9	2.7	11.5	57.4	58.8
		Wells Fargo	291.2	116.7	1.8	12.3	14.6	18.0	3.3	9.1	31.7	32.1
		PNC Financial	82.6	59.6	1.5	12.2	13.3	15.4	6.4	14.5	4.5	9.2
	유럽	Banco Santander	168.3	65.7	1.4	13.2	10.6	13.7	1.8	3.7	105.7	115.7
		Unicredit	123.4	88.4	1.6	16.6	9.6	11.9	3.7	4.7	73.3	75.2
		BBVA	129.9	54.3	1.9	17.8	10.5	4.9	1.7	4.5	97.9	103.2
		ING Group	82.3	109.5	1.4	12.1	11.8	(1.6)	2.5	3.6	58.0	55.0
		Lloyds	73.8	94.7	1.4	11.0	15.1	0.0	(2.1)	2.4	69.2	71.1
		Barclays	82.5	63.3	1.0	9.7	12.1	0.0	2.3	7.5	64.9	65.7
	일본	Mitsubishi UFJ FG	190.4	63.5	1.3	10.2	13.4	16.6	(1.2)	2.0	35.1	35.4
		Sumitomo Mitsui FG	123.1	57.3	1.2	10.0	12.7	29.6	0.5	14.8	32.0	32.1
		Mizuho FG	91.4	63.8	1.3	10.4	12.8	27.8	1.0	7.9	49.9	47.7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3.0	30.1*	0.6	9.3	6.1	2.0	(3.0)	(6.5)	28.5	17.9
		China Construction Bank	262.6	29.9*	0.6	10.0	5.9	(1.8)	(4.3)	(8.5)	22.4	17.9
		Agricultural Bank of China	371.2	31.1*	0.7	10.1	7.2	2.7	(2.1)	(10.0)	35.7	25.3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80.3	N/A	1.5	9.0	19.6	(38.4)	(0.9)	(2.0)	9.2	10.0
		AIG	45.8	202.7	1.1	9.2	13.3	흑전	10.2	9.2	16.5	16.6
		Travelers Insurance	63.6	65.8	1.9	19.1	11.3	17.3	1.6	(0.7)	15.8	18.4
	유럽	Allianz	169.9	78.1	2.4	18.3	13.3	13.2	3.7	3.5	25.9	28.6
		AXA	100.7	61.8*	1.8	17.4	9.3	23.6	4.7	4.9	18.4	17.7
		Generalli	61.8	56.5*	1.6	13.7	12.3	14.2	0.7	0.7	20.1	24.6
	일본	Tokio Marine	71.6	40.9*	2.1	20.1	11.2	(4.9)	4.3	(2.7)	1.3	0.6
		Daiichi Life Insurance	30.3	47.6*	1.2	11.4	11.9	(7.6)	4.4	4.6	20.8	20.4
	중국	Ping An Insurance	157.6	32.7*	1.1	15.1	7.6	17.5	5.5	6.3	37.5	38.4
		China Life Insurance	160.8	14*	1.3	28.5	5.0	51.2	0.3	3.4	90.2	92.8
		PICC P&C Insurance	48.4	33.4*	1.3	16.4	8.2	42.2	(2.8)	(9.6)	41.7	38.3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76.6	106.1	2.5	14.3	18.2	20.3	3.9	12.3	51.7	55.1
		Morgan Stanley	283.5	66.7	2.8	16.1	18.1	24.2	1.1	8.9	40.0	41.9
		Charles Schwab	176.7	92.8	3.8	20.6	20.9	54.8	3.0	2.4	21.5	30.6
		Robinhood	107.6	39.6	12.0	21.4	58.8	30.2	(9.4)	(2.4)	197.3	220.7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63.5	78.1	8.6	34.5	24.7	10.6	3.3	7.1	26.6	28.9
결제	미국	VISA	680.6	21.6*	17.1	63.4	27.4	24.4	5.0	5.4	10.5	10.1
		MasterCard	513.6	18.6*	63.4	203.6	35.0	17.5	4.8	4.8	8.1	8.6
		PayPal	57.7	2.6*	2.9	25.3	12.0	28.5	(1.0)	(1.8)	(32.3)	(27.8)
	유럽	Adyen	49.4	0*	7.9	22.5	39.1	15.0	(1.2)	(5.3)	(10.5)	(7.2)
핀테크	미국	Block	39.3	0*	1.7	6.7	26.3	(45.8)	6.0	7.1	(29.6)	(23.8)
		Upstart	4.8	0*	6.5	14.4	101.6	N/A	5.6	27.5	(41.6)	(19.8)
		Affirm	22.2	0*	5.6	10.6	66.1	578.4	(1.1)	(4.6)	(4.9)	10.4
	중국	LuFax	2.4	N/A	N/A	(2.8)	N/A	흑전	0.0	0.0	4.0	10.9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12/12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